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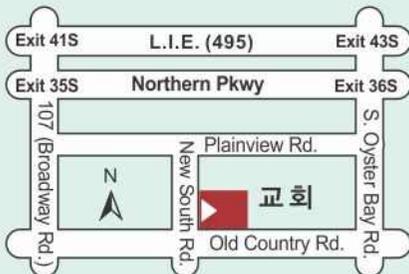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 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배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Confession	다 같이		
찬송 Hymn	151장, 336장		
기도 Prayer	이태호집사	윤희주장로	유학준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사(Isa) 53:1-12		
찬양 Anthem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Sermon	고난 받는 종 김중훈목사		
찬송 Hymn	630장		
봉헌 Offering	다 같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찬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류석환집사	2부 정수영장로	3부 김근태장로
방송설교	KRB FM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코로나(변이)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진압되도록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사(Isa)49:14-50:3

제목: 하나님의 사랑

고난 앞에 인생은 연약하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지 않고 해로운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 꼭 붙잡아야 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생활의 고난 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A. 사실과 의미

1. 어머니 사랑(49:14-16)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질문은 주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으신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적막이를 잊을 수 있으며 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인간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구원자 사랑(49:24-26)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질문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의 손에서 건져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구원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3. 남편의 사랑(50:1)

어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내 보낸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포로생활을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언제나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의미를 살핀 후, 마지막으로 오늘의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의미를 살피는 것은 주석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용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롬 5:5).

B. 적용

1. 어머니의 사랑은 1.4 후퇴 때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 감싸 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2. 구원자 사랑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건져주신 광복절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3. 남편의 사랑은 호세아서에서 보여 주신 창녀를 짝사랑하는 비련의 남편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멜과 같이 방황하고 음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바 될 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부족하지만 내 사랑을 전부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사랑, 하나님의 교회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사랑이 부어지는 곳에 새로운 부흥(revival)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 부흥이 다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목장이야기

유스그룹 여름 신앙수련회

지난 일 년 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이 팬데믹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단절되고 고립되어 주변의 소셜 미디어에만 의존해야 했던 많은 십대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아무리 잘 계획하더라도 함께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에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자아상과 자존감에 대한 스트레스, 집에 갇힌 스트레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와 고통은 더 깊어졌고 기도도 교제, 하나님의 말씀의 출구가 없었던 학생들은 다른 대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알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이해하기”**였습니다. 수련회는 우리의 영적 나침반을 재설정하고 영적 기초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탄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도록 속여 왔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수련회는 연결됨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결, 많은 학생들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영적 부흥과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예배

온라인 예배 가이드

*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2. 예배 전에 씻고 아침을 먹는다. 식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3. 교회 갈 때처럼 예배에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십일조 및 헌금을 준비한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우편봉투에 넣어 예배시간에 드린다. Venmo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헌금시간에 맞추어 헌금한다. 주중에 교회에 들어서 헌금하실 분들은 부목사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다.
5. 예배시간(2부 9시 30분, 3부 11시)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한다.
<http://www.yalechurch.org/live-stream-sermon/>
6. **동시통역:** 3부 예배(11시)에 동시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Join Zoom Meeting: Meeting ID: 871 2789 7718 Passcode: 861254
<https://us02web.zoom.us/j/87127897718?pwd=dTFkMG1XN3E2MnBkUTMyUUJFdTBsZz09>
7. 다음을 숙지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 a. 발을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예배당에서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 b. 아이들은 부모 옆에 앉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녀들에게 참을성 있게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 c. 설교 및 찬양 시간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나 잡담은 피한다.
 - d.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 e.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한다.
 - f. 예배 후에 주어지는 적용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8월 25일
기 도	이석순권사
말 씬	김종훈목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씬	김종훈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8월 29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류석환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정수영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김근태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9월 1일 수요기도	이재덕권사	예배부

교회소식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6/27일부터 본당에 앉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임시당회:** 오늘 오후 12시 30분 교회
3. **제직회:** 8월 2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안건: 유명근전도사 목사 안수건)
4. **8월 목장예배:** 8/27(금) 오후 8:30, 각 목장별로
*8/25 수요예배 후 마을지기, 목자, 총무 모임 및 목장교안 배부
5. **축하:** 총회 목사고시 합격 유명근전도사
노회 장로고시 합격 김두성집사, 김동환집사, 전용수집사
6. **총회 임원회 참석:** 윤희주장로(8/23-26)
7. **주차 안내:** 향존직은 16번지에 주차를 해주시고, Sign(교회버스주차, 방문자주차)이 있는 곳은 교회버스와 방문자가 주차합니다.
8.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유명근전도사&김호진사모(딸생일), 지재홍장로(어머님추모), 채문권목사&허경원사모(아들생일)
 - 사랑의식탁: 김신혜권사(어머님추모)

행사예고

-8/29	제직회 오후 2시 30분 본당
-9/5	정기당회
-9/13-14	제 65회 뉴욕노회

QT본문

요일	일(22)	월(23)	화(24)	수(25)	목(26)	금(27)	토(28)
본문	시(Ps) 66:10-20	시(Ps) 67:1-7	시(Ps) 68:1-18	시(Ps) 68:19-35	시(Ps) 69:1-18	시(Ps) 69:19-36	시(Ps) 70:1-5

목양 칼럼

2021. 34.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두 주 전에 뉴욕노회 동북시찰 회원들과 함께 매사추세츠 주 노샘프턴 제일교회(The First Church, Northampton)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가 미국의 가장 큰 부흥운동이었던 뉴잉글랜드 지역 대각성운동(1730-1740)의 중심지가 된 교회였고, 그 운동의 중심인물이 그 교회 담임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설교 "진노하시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그 운동 여파로 프린스턴 대학교, 펜실바니아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닥터머스 대학교 등이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의 대가인 이상현 박사는 그의 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과 청교도 신앙"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공헌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을 재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 성경의 권위가 성도의 권위이다(rule of faith and life).
2. 체험적 신앙과 성도의 신앙 실천은 하나이다.
3. 신앙의 감격은 성령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4. 신앙 경험에 있어서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재한다. 이성을 무시한 passion이 아니라 이성을 동반한 affection이 바람직하다.
5. 신앙 체험에는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균형이 중요하다. 의존할 수 없는 회심의 표징들로 몸에 육체적으로 느낀 어떤 감정, 자신의 능력에 의한 회심 체험, 어느 특정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간증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의존할 수 있는 표징들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감각,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자신의 유익과 관계없이 기쁘고 사랑스러운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참 진리임을 믿게 되는 것, 성격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 신앙이 실천으로 열매 맺는 것 등을 들었다.
6. 하나님의 창조는 그의 내적으로 완전한 아름다움을 외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재현(repetition) 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적 영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재현'의 작업도 무한하다.
7. 종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하신 구원의 작업이 끝나는 날이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빛나간 인류를 옳은 궤도에 다시 올려놓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끝나는 날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완성된 교회인 신부와 만나는 날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 영원히 전개되며, 성도들은 영원히 재현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기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8.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은 곧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1726년에 노샘프턴에서 목회 시작한 이래 23년 후인 1750년에 그 교회에서 해임당해 사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던 목사가 해임된 이유는 유럽 이민 1세대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주류를 이루었던 2세대들은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 생활을 문란하게 했습니다. 성찬식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왔으면 누구나 참석했고,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어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불평과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노샘프턴 도시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듯 했습니다. 곳곳에 동성애자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짝을 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아 이러니칼하게도 그 교회 게시판에는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라인 위에 "All Welcome" 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밑에는 "The Jonathan Edwards Church"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곳은 영적 대각성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부흥의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이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신앙 훈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때 변화가 생기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